

취락구조 개선마을(新村型)의 주민의식 및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임승빈 * · 조순재 * · 박창석 ***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농촌생활연구소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Project evaluation by the rural villagers on and spatial analysis of the
reconstructed villages under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Project (Type A)

Im, Seung-Bin * · Cho, Soon-Jae ** · Park, Chang-Sug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 *Graduate School, Seoul Nat'l Univ.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of residents' attitudes and spatial structures in the rural villages reconstructed by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Project(type A), and suggesting the guiding directions for planning rural villages. Six rural villages located in KyungGi province were selected for case study.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 1) The ratio of type A project(newly planned village) in the total cases of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Project has increased since 1990. In the majority(91.2%) of the type A project, the project area is below 2 ha and density of dwelling unit is below 40 households/ha.
- 2) The three spatial structures of newly planned rural village, i.e., Loop pattern, Cul-de-sac pattern, and Dendritic pattern, are identified. And the barns in the newly-build houses are categorized into the five types : the vertical addition type, the horizontal addition type, the vertical-horizontal addition type, the no-barn type, and the reused-barn type.
- 3) In the newly planned rural villages, the level of satisfactions for the quality of house and water & sewer system is remarkably higher than in the existing rural villages. These are the positive effects caused by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Project.
- 4) The majority of the villagers think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rural village, instead of redevelopment or newly planned village, is most desirable, which means the improvement of houses, roads, and sanitary facilities while preserving the spatial structures of the existing village.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94 농업특정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과제명: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I. 연구배경 및 목적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 운동이 최초의 시도였으며, 농촌새마을 운동에 기초하여 주택개량사업, 부업 및 화장실 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이 추진되었다(김, 1992). 특히, 단위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져 왔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99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는 50호 이상의 사업규모를 지닌 신주거지 개발 방식이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1972년부터 내무부의 행정지침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호 정도의 사업규모이고 신촌형(A형)과 개선 및 합촌형(B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돈형(C형)은 1976-1977년에만 시행되었다. 1995년 들어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내부구조개선, 하수도 정비 등의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패키지 개념(package project)을 도입하였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농촌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약 20호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계획농촌마을의 형성을 위한 사업방식으로 볼 수 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50호 이상의 사업규모를 지니 취락구조 개선사업보다는 사업규모가 크고 농촌거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단위농촌마을에 시행되는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과 규모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시각적 특성의 분석(김, 1987), 주거환경에 대한 이미지와 선호, 만족도의 비교(엄, 1990), 사회·경제적 비교·분석(하 외, 1981),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 외, 1979; 김, 1992) 등의 부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공간구조와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주택 및 대지규모에 대한 평가(임 외, 1995)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 및 주민의식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취락구조 개선사업

의 공간구조와 개발방향에 대한 평가는 소규모 계획농촌마을의 바람직한 개발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신촌형)이 수행된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와 주민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해 형성되는 소규모 계획농촌마을의 바람직한 공간구조와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취락구조 개선사업(신촌형)이 수행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공간구조와 개발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규모 계획농촌마을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은 전국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신촌형)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하 취락구조 개선마을)과 기존 농촌마을을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즉, 기존 농촌마을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대상마을이며, 취락구조 개선마을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해 형성된 마을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에서 1993년까지의 전국 및 경기도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1986-1994년까지 조성된 신촌형(A형)인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사업면적, 호수밀도 등을 경기도 취락구조 개선마을 현황카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의 호수밀도와 사업면적을 문화마을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1993년 이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신촌형)이 시행된 농촌마을중에서 6개 사례대상 농촌마을(능곡리, 외사리, 산평1리, 양촌리, 북리, 백안3리)¹⁾을 선정하여 공간구조와 주민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사례대상 농촌마을의 선정시 1993년 이후에 조성된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제한한 것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즉, 1993년 이전의 사업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례대상 농촌마을(6개 마을)에 대한 문헌 조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주민인터뷰가 연구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6개 사례대상 농촌마을에 대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시행된 마을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현황, 신축 주택의 부속사 유형 등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및 주민인터뷰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선정된 4개 마을(농국리, 외사리, 산평1리, 양촌리)에 대해 취락구조 개선마을과 기존 농촌마을과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필요시설, 농촌마을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주민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1> 사례대상 농촌마을의 위치 및 사업목적, 조사방법

구분	행정구역	취락구조 개선 사업의 목적	거주가구		조사 방법
			기존 마을	취락 마을	
외사리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영농불편 해소와 전원농촌 형성	33(24)	19(17)	●
양촌리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상습침수지역인 마을 이주	---	17(15)	●
산평1리	안성군 서운면 산평1리	기존마을 불량주택의 재정비와 인근마을의 주택이주	18(14)	19(12)	●
농국리	안성군 일죽면 농국리	청미천의 제방보다 낮아 홍수의 위험이 우려되는 마을 이주	21(16)	19(18)	●
북리	용인군 남사면 북리	농경지 주변의 산재된 불량주택 이주	58 (24)		○
백안3리	양평군 양평면 백안3리	기존 새수골 마을의 주택을 이전	52 (22)		○

註) *: 경기도청 주택과의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과 현황카드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 : 조사방법에서 ●는 현장조사와 설문조사가 병행된 마을을 의미하며, ○는 현장조사만 수행된 마을을 나타낸다. 그리고 거주가구에서 괄호()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하나, 북리와 백안3리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대상 가구 수이다.

현장조사는 1995년 4월-5월의 4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와 주민 인터뷰는 1995년 5월 13일(농국리, 산평1리)과 5월 14일(외사리, 양촌리)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각 거주가구의 63.2%-94.7%

에 대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총 거주가구의 79.5%가 설문조사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행현황 및 호수밀도 분석

1980-1993년까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표 2>, 전국적으로 신촌형(A형)이 612개 마을, 개선 및 합촌형(B형)이 1,145개 마을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5개 마을(A형)과 188개 마을(B형)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신촌형이 전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47.2%(143개 마을:전국)와 68.3%(28개마을:경기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촌형(A형)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현황과 변화 : 전국 및 경기도

구분 년도	전국		경기도	
	신촌형(A형)	개선 및 합촌형(B형)	신촌형(A형)	개선 및 합촌형(B형)
1980	155	490	9	91
1981	85	115	8	22
1982	36	64	3	12
1983	40	61	3	11
1984	32	70	5	9
1985	39	65	3	11
1986	31	50	2	8
1987	23	38	2	8
1988	13	25	0	7
1989	15	7	2	1
1990	23	28	6	4
1991	32	57	2	5
1992	48	32	9	3
1993	40	43	11	1
합계	612	1145	65	188

註) *: 1994년도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80개, 경기도에서는 9개 마을에 대해 수행되었다.

** : 경기도청 주택과에서 작성한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정리하였다.

1986년-1994년 동안 경기도에서 조성된 39개의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에서 자료수집이 가능

한 32개 취락구조 개선마을과 문화마을(12개)을 중심으로 사업면적과 호수밀도(戸/ha)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호수밀도(戸/ha)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 가구(戸)를 취락구조 개선사업 부지면적(ha)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의 평균 면적은 0.97ha이고 평균 호수밀도는 23.4戸/ha로 나타났고(사업면적 5ha는 특이한 경우로 보아 평균면적 및 호수밀도 산출에서 제외함), 문화마을은 5.6ha와 23.5戸/ha이었다(그림 1).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에서 연립주택(18호)이 조성된 경우에는 호수밀도(100戸/ha)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과 호수밀도와의 상관관계(pearson's r)가 $-0.39(p<0.05)$ 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약 20호 정도의 사업규모를 지니고 있어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호수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²⁾.

2. 사례대상 농촌마을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분석

1) 사례대상 농촌마을의 공간구조 분석

(1)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관계

농촌마을의 계획/정비 유형(임 외, 1995)에 따라 사례대상 농촌마을을 구분할 경우³⁾, 외사리와 백안 3리는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에 속하고, 능곡리, 양촌리, 북리는 농촌마을 독립형에 속한다. 그리고 산평1리는 현지마을 정비형의 마을재개발에 속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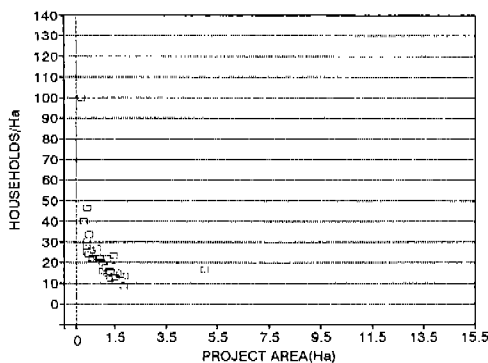
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마을 계획/정비유형의 구분은 물리적 형태에 초점을 두어 분류한 것으로서 우리마을 인식범위와 같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능곡리 등을 농촌마을 통합형으로 볼 수도 있다⁴⁾.

(2)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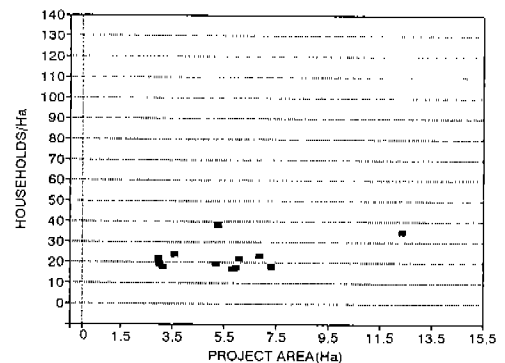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는 도로패턴에 따라 크게 순환형, 막다른 골목형, 가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구체적인 공간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순환형의 경우 차량순환이 용이하고 통과도로와 마을내 순환도로의 분리가 가능하나, 농촌마을의 기존 공간구조와 대비되어진다. 막다른 골목형은 통과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으나, 골목끝에서 차량회전이 곤란하다. 가지형의 경우 기존 공간조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농촌경관의 형성이 가능하나, 사업부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로패턴과 도로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순환형의 경우 도로율이 21.2%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막다른 골목형(17%, 20%), 가지형(8.6%, 16%)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사업비율[(기반시설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100]의 경우, 가지형이 64%와 10.2%로 가장 낮은 기반시설 사업비율을 보였고, 순환형(14.0%, 19.6%), 막다른 골목형(16.2%, 20.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환형과 막다른 골목형, 가지형 등의 공간구조는 사업부지의 특성과 주민선호 등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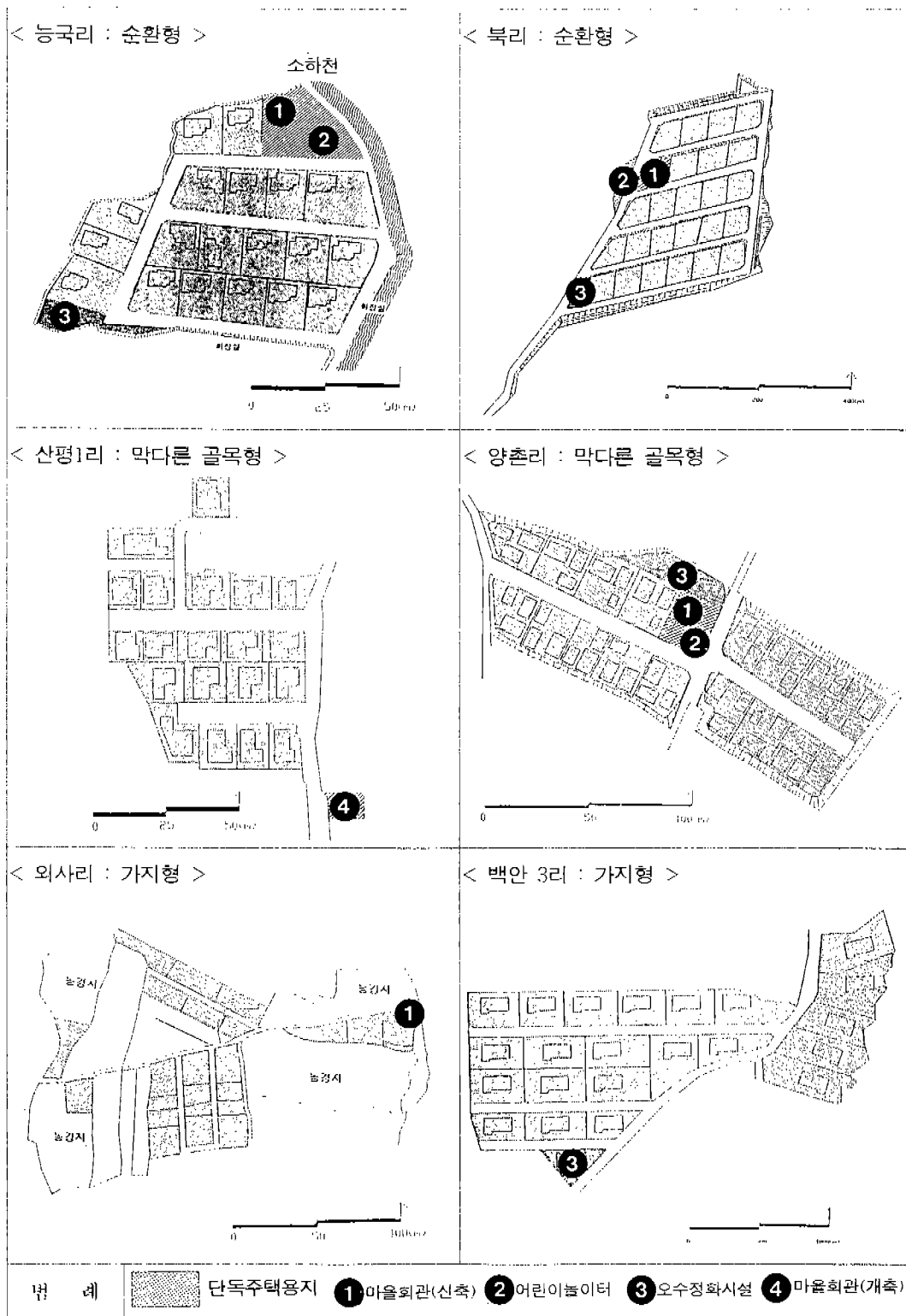


(a)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



(b) 문화마을

〈그림 1〉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과 문화마을의 사업면적과 호수밀도 비교



<그림 2> 사례대상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의 공간구조

영하는 것으로서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는 기존 농촌마을의 경관 특성과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기존 도로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가지형인 외사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기존 농촌마을에 비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점(〈표 6〉참고)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2)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토지이용현황

산평1리의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사업면적은 0.4ha이었으며, 그외의 5개 취락구조 개선마을 면적은 1.3ha-1.6ha으로 나타났다(〈표 3〉). 각 취락구조 개선마을에는 17호-24호의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호수밀도(戶/ha)는 12.5-46.5로 나타났다.

〈표 3〉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사업면적 및 토지이용 계획, 호수밀도

구 분	능곡리	외사리	산평1리	양촌리	북리	백안3리	
취락구조 개선사업면적	1.4ha	1.5ha	0.4ha	1.5ha	1.6ha	1.3ha	
사업전 토지 이용	전·답 대(垵) 기타(임야, 도로, 川)	99.99% 100%	100% ---	100% ---	90.7% ---	100% ---	
사업후 토지 이용	대(垵) 도로용지 공공시설 용지**	69.2% 21.2% 9.6%	86% 16% 8%	77% 20% 3%	74% 17% 9%	53% 27% 20% 6.9%	84.5% 8.6%
사업대상가구	19가구	19가구	19가구	17가구	24가구	24가구	
호수밀도(戶/ha)	12.9	12.5	46.5	11.3	15.0	18.2	
취락구조 개선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1168.1 자부담비 403.1 (34.5%)	916 466 (50.9%)	800.8 335.1 (41.8%)	945 473 (50.1%)	1864 1073 (57.6%)	928.1 450.6 (48.6%)	

註) *: 경기도청 주택과에 비치된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과 현황카드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사업전 토지이용과 사업후 토지이용은 취락구조 개선사업면적에 대한 해당 토지이용의 비율을 의미한다.

** : 공공시설용지는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오수정화시설, 소공원, 녹지 등이 포함되고, 북리의 경우 녹지면적이 2,111m²으로 나타났다.

산평1리를 제외한 5개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답을 대(垵)로 지목변경하여 취락

구조 개선마을을 조성하였다. 산평1리에서 기존 주거지를 재개발하였기 때문에 사업전 지목은 모두 대(垵)였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사업후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지가 5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도로(8.6%-27%), 공공시설(3%-20%)로 나타났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는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오수정화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표 4〉). 마을회관의 경우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는 기존 마을회관을 재건축하였고, 백안3리에서는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못했다.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대부분 自負擔으로 조성되는데, 산평1리와 백안3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는 부지 확보와 사업비 마련이 곤란하여 취소되었다.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능곡리, 양촌리, 북리의 취락구조 개선마을에는 토양침윤식공법이었고 백안3리에서는 집축폭기조공법이었다. 외사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공원은 능곡리와 산평1리에서 계획되었으나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표 4〉 사례대상 농촌마을의 공공시설 추진 및 설치 현황

구 분	능곡리	외사리	산평1리	양촌리	북리	백안3리	
취락구조 개선마을	마을회관	386	131	165 (재건축)	661	286 계획 (471)	
	어린이놀이터	165	990	계획 (70)		230 계획 (437)	
	오수정화시설	865	계획	계획	775	473	100**
	소공원	계획 (30.1)	---	계획 (15)	---	---	---
기존농촌마을의 공공시설 현황	마을회관	청년회관	산평국교 상점	마을회관 노인회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마을회관 정자복공간	

註) *: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는 기존 마을회관을 재건축하였고 어린이 놀이터와 소공원은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취소되었다. '계획'은 사업계획시는 계획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취소된 사업이다.

** : 백안3리의 오수정화시설(100m²)은 취락구조 개선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공공시설 면적(〈표 2〉)참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경우 사업계획시 고려되었던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오수정화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들 사업들이 취소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농촌마을의 재개발 시에는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 사례대상 농촌마을에서 신축 주택의 부속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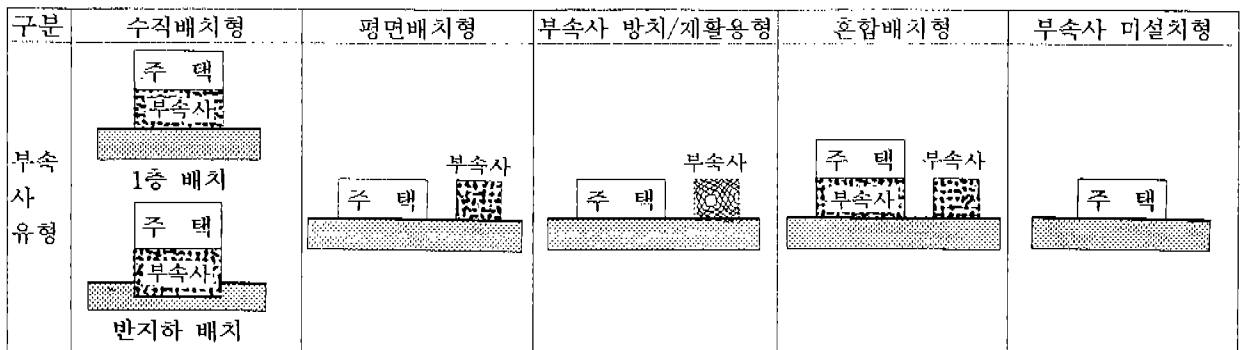
농촌마을에 신축되는 주택은 직업구성과 영농유형, 대지규모 등의 변화를 수용하고, 또한 이러한 변화는 부속사의 필요여부와 규모,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농촌마을에서 신축 주택의 부속사 유형은 농촌주택과 농촌주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기존 농가주택에 대한 부속사 배치는 一자형, 二자형, 卍자형, ㄴ자형, ㄷ자형, ㄹ자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윤, 1995), 신규 주택의 부속사 유형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례대상 농촌마을에서 신축된 주택에서의 부속사 이용형태와 배치를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속사 배치를 평면배치형, 수직배치형, 혼합배치형, 부속사 미설치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 특히, 평면배치형에서 부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부속사를 방치/재활용하는 경우를 각각 평면배치형과 부속사 방치/재활용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능곡리,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농가에서는 대부분 수직배치형으로 나타났고, 외사리,

양촌리, 백안3리, 북리 등의 농가에서는 평면배치형이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비농가 혹은 탈농가는 모두 부속사 미설치형이었다. 기존 농촌마을에서의 신축 주택은 평면배치형, 혼합배치형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수직배치형은 주택의 반지하 혹은 1층을 부속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속사의 신·개축 등에 제한이 있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높이고 비교적 좁은 대지에서도 가능하다. 평면배치형은 부속사가 평면적으로 설치·확장되는 형태로서 부속사 건물의 신·개축 등이 비교적 용이하나, 상대적으로 큰 대지면적을 필요로 한다. 부속사 방치/재활용형은 기존 농가주택을 재건축하면서 기존의 부속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부속사를 주거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이며, 거주자의 직업이 비농/탈농으로 변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혼합배치형은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1층에 부속사를 배치하고 기존 부속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수직배치형에 부속사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혼합배치형은 기존 농가 주택의 재건축시에 많이 나타난다. 부속사 미설치형의 경우 주로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비농가/탈농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할 때 부속사를 반지하에 배치하는 수직배치형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 주택에서의 부속사 유형 및 효율적인 대지활용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3〉 사례대상 농촌마을의 신축 주택에서 나타나는 부속사 유형

4. 사례대상 농촌마을의 주민의식 조사·분석

구체적으로 4개 사례대상 농촌마을에서의 설문 응답자는 남녀별, 연령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취락구조 개선마을과 기존 농촌마을 모두에서 농(목축)업이 대부분(41.2%-100%)으로 나타났다<표 5>. 특히, 거주주택에 대한 소유관계 조사

에서 외사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전세의 비율이 29.4%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취락구조 대상 가구가 신축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내주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능 국 리		외 사 리		산 평 1 리		양 촌 리
		기존농촌 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	기존농촌 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	기존농촌 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
성 별	남 성	10(62.5%)	8(44.4%)	17(70.8%)	11(64.7%)	9(64.3%)	8(66.7%)	14(93.3%)
	여 성	6(37.5%)	10(55.6%)	7(29.2%)	6(35.3%)	5(35.7%)	4(33.3%)	1(6.7%)
연 령	20-29세	2(12.5%)	---	5(20.8%)	1(5.9%)	3(21.4%)	1(8.3%)	---
	30-39세	4(25.0%)	3(16.7%)	3(12.5%)	8(47.1%)	3(21.4%)	3(25.5%)	5(33.3%)
	40-49세	2(12.5%)	6(33.3%)	5(20.8%)	2(11.8%)	2(14.3%)	2(16.7%)	3(20.0%)
	50-59세	4(25.0%)	5(27.8%)	5(20.8%)	4(23.5%)	3(21.4%)	3(25.0%)	5(33.3%)
	60세 이상	4(25.0%)	4(22.2%)	6(25.0%)	2(11.8%)	3(21.4%)	3(25.0%)	2(13.3%)
세대주의 직 업	농(목축)업	11(68.8%)	11(61.1%)	19(79.2%)	7(41.2%)	8(57.1%)	10(83.3%)	15(100%)
	회사원	1(6.3%)	3(16.7%)	2(8.3%)	2(11.8%)	2(14.3%)	2(16.7%)	---
	공무원	1(6.3%)	2(11.1%)	---	2(11.8%)	---	---	---
	도·소매업	1(6.3%)	---	1(4.2%)	1(5.9%)	1(7.1%)	---	---
	기능직	1(6.3%)	2(11.1%)	1(4.2%)	3(17.6%)	1(7.1%)	---	---
	일용직	---	---	1(4.2%)	1(5.9%)	---	---	---
	전문(자유)업	---	---	---	1(5.9%)	---	---	---
	무직(정년퇴직)	1(6.3%)	---	---	---	2(21.4%)	---	---
주택소유	자 가	16(100%)	18(100%)	22(91.7%)	12(70.6%)	12(85.7%)	12(100%)	15(100%)
	전 세	---	---	2(8.3%)	5(29.4%)	2(14.3%)	---	---

2)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

사례대상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취락구조 개선마을 혹은 기존 농촌마을)의 전체 모습을 머리속에 떠올리게 한 후, 해당 주거지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 5점 척도[매우 불만족(1)-불만족(2)-보통(3)-만족(4)-매우 만족(5)]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주거환경 및 주택의 질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농촌마을 주거환경 및 주택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그러나 산평1리의 경우 주거환경 및 주택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기존 농촌마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들이 밀

집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한 대지내 공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전반적인 주거환경 및 주택의 질에 대한 만족도 비교

구 분	능국리		외사리		산평1리		양촌리
	기존	취락	기존	취락	기존	취락	(취락)
전반적인 주거환경	2.87	3.72	3.51	3.47	3.57	3.00	3.38
전반적인 주택의 질	2.94	3.89	2.70	3.71	3.21	3.05	3.64

註) 기존과 취락은 각각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의미하며, 만족도는 5점 척도[매우 불만족(1)-불만족(2)-보통(3)-만족(4)-매우 만족(5)]의 값을 평균한 것이다.

그리고 능국리와 외사리, 산평1리를 대상으로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구분하여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T-test, P<0.05). 구체적으로 주택의 질, 상수도, 하수도에서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간에 만족도의 차이를 보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주택의 질과 상·하수도 등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7>. 이러한 점은 실제 주민들의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찬성이유(<표 9> 참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취락구조 개선 마을과 기존 농촌마을 모두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평1리(상점)를 제외하고는 상업시설이 농촌마을내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은 상업시설에 대한 시설요구도가 1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표 10> 참고)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진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기계화된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농촌마을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상업시

설, 하수도시설, 도로시설 등에 대한 불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사례대상 농촌마을(4개)에 거주하는 설문응답자에게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찬반여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표 8>, 설문응답자의 81%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

구 분	매우반대	반 대	그 저 그렇다	찬 성	매우찬성
응답율(%)	0.9	4.3	13.8	56.0	25.0
(명)	(1)	(5)	(16)	(65)	(29)

註)응답율(%)=(해당 항목의 응답자 수 / 총 응답자 수) * 100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이유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표 9>,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반대이유로 정부보조금 등의 지원미흡(5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민들간의 친분 약화(22.2%), 기존 논·밭을 주거지로 전용(11.1%), 협소한 대지면적(1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찬성이유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의 확보(55.7%), 농촌마을 발전효

<표 7>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간의 주거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T-test

구 분	기 존 농촌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
전반적인 주거환경	3.35	3.45
전반적인 주택의 질	2.95**	3.66**
어린이놀이터	2.12	2.18
마을 회 관	3.35**	2.64**
상 업 시 설	2.31	2.56
상 수 도	3.15**	3.47**
하 수 도	2.48*	3.30*
도 로 시 설	2.61	3.09
주경작지까지의 접근성	3.33	3.00
인접도시로의 접근성	3.20	2.96

註) 기존과 취락은 각각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의미하며, 만족도는 5점 척도[매우 불만족(1)-불만족(2)-보통(3)-만족(4)-매우 만족(5)]의 값을 평균한 것이다. (* : p <0.05, ** : p <0.01)

<표 9>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찬성 및 반대이유 분석

구 분	취락구조개선사업 에대한 반대이유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찬성이유					
	①	②	③	④	㉠	㉡	㉢	㉣	㉤	㉥
응답율(%)	11.1	55.6	22.2	11.1	18.6	5.2	10.3	55.7	8.2	2.1
(명)	(1)	(5)	(2)	(1)	(18)	(5)	(10)	(54)	(8)	(2)

註) * :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반대이유로 ① 기존 논·밭을 주거지로 전용, ② 정부보조금 등 지원미흡, ③ 주민들간의 친분 약화, ④ 협소한 대지면적이며, 찬성이유로는 ㉠ 농촌마을 발전효과, ㉡ 농촌마을 경관 개선, ㉢ 주택신축 등에 정부보조금 지원, ㉣ 깨끗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 ㉤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 ㉥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등이다.

** : 응답율(%) = (찬성 혹은 반대의 해당 이유에 대한 응답자 수/찬성 혹은 반대의 총 응답자 수) * 100

과(18.6%), 주택 신축 등에 정부보조금 지원(10.3%),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8.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농촌마을 주민들 상당수(63.9%)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깨끗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과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인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농촌마을의 추가 필요시설에 대한 요구도 분석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촌마을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보기>를 참고하여 설문응답자가 직접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보기>에는 조사대상 마을 규모(약 50호)를 고려하여 교육시설(3개), 의료시설(4개), 농작업관련공동시설(5개), 농업관련산업시설(3개), 공원·체육시설(4개), 공동편익시설(3개) 등의 29개 시설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농촌마을내 추가 필요시설 요구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표 10>, 공원·체육시설(68.2%), 오수정화시설(32.8%), 농작업관련공동시설(24.9%), 공동편익시설(23.7%), 의료시설(17.3%)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34.5%), 오수정화시설(32.8%), 공동목욕탕(16.4%), 주민휴식시설(13.8%), 상점(잡화점)(13.8%) 등의 순서로 시설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오수정화시설이 없는 취락구조 개선마을(외사리, 산평1리)과 기존 농촌마을(능국리, 산평1리, 외사리)에서 각각 41.4%와 24.1%로 비교적 높은 요구도를 보여 오수정화시설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주택개량, 하수도 및 소화천 정비 등의 단위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농촌마을에서도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오수정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농촌마을(약 50호)에서는 공원·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표 10> 농촌마을내 추가 필요시설에 대한 요구도 분석

구분		응답율(N)	소계(%;명)
교육시설	유치(아)원	3.4%(4)	3.4%(4)
	국민학교	---	
	중학교	---	
의료시설	보건소	6.9%(8)	17.3%(20)
	약국	6.1%(7)	
	한의원 병/의원	4.3%(5)	
농업관련 산업시설	농기계수리센터	7.8%(9)	8.7%(10)
	정미소	0.9%(1)	
	비료·종묘·농약상	---	
상업시설	상점(잡화점)	13.8%(16)	15.5%(18)
	시장	1.7%(2)	
오수정화시설		32.8%(25)	32.8%(25)
공공서비스 관련시설	소방소	1.7%(2)	4.3%(5)
	파출소	2.6%(3)	
농작업관련 공동시설	농기계창고	10.3%(12)	24.9%(30)
	마을공동창고	10.3%(12)	
	공동축사	3.4%(4)	
	공동작업장 공동덧밭	0.9%(1) ---	
공원·체육 시설	어린이놀이터	34.5%(34)	68.2%(73)
	주민휴식시설	13.8%(16)	
	마을공원 생활체육시설	7.8%(9) 12.1%(14)	
공동편익 시설	노인정	7.6%(9)	23.7%(28)
	공동주차장	---	
	공동목욕탕	16.1%(19)	
기 타	농협 등의 금융시설	0.9%(1)	0.9%(1)
	종교시설	---	

註) 응답율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응답수 / 총 응답자 수) * 100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하고,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오수정화시설이 없는 산평1리, 외사리(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와 능국리(기존 농촌마을)에서의 응답을 토대로 응답율을 도출하였다.

으며, 공원·체육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휴식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complex facility)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공원·체육시설은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이용도의 증가 및 사회적 교류의 촉진 등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1993년 이후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쉼터(농촌진흥청)의 개념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의 소규모 농촌마을 계획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작업관련공동시설에서는 농기계창고와 마을공동창고의 요구도가 각각 10.3%로 나타났으므로 농기계창고 및 마을공동창고를 각각 거주세대의 약 10%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농기구보관 및 마을공동창고 면적 산출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농촌마을 개발방향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농촌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발방식을 ① 신주거지를 개발하여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식(취락이전방식), ② 기존농촌마을을 신주거지로 재개발하는 방식(취락재개발방식), ③ 농촌마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방식(취락정비방식)으로 구분하고 설문응답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존 마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취락정비방식이 60.9%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따라서 농촌마을 계획/정비방식으로서 취락정비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농촌주민들의 선호를 고려하고 농촌마을 공간조직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기반시설의 확충 등의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목적 등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공(폐)가에 대한 철거비용이 자부담으로 되어있어 방치되거나 축사/창고 등으로 사용되어 기존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므로 이들 공(폐)가의 철거를 위한 적절한 경제적 및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폐)가의 처리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공(폐)가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0.7%로 나타났다(농촌생활연구소,1995).

6) 대지 및 부속사 규모에 대한 평가

사례대상 농촌마을(4개)의 설문응답자에게 현재의 대지규모와 부속사 규모를 조사하고 이들 규모

<표 11>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찬성 및 반대이유 분석

구 분	기 존 농촌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	전체 평균
취락이전방식	13.2%	29.8%	21.8%
취락재개발방식	18.9%	15.8%	17.3%
취락정비방식	67.9%	54.4%	60.9%
합 계 (명)	100%(53)	100%(57)	100%(110)

註) * : 기존 농촌마을에서는 능국리, 외사리, 산평리에서의 개발방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평균하였으며,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는 능국리, 외사리, 산평1리, 양촌리에서의 응답을 평균한 것이다.

** : 응답율(%) = (해당 항목의 응답자 수/해당 주거지의 총 응답자 수) * 100

에 대해 5점척도[매우 작다-작다-적당하다-크다-매우 크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마을과 기존 농촌마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부속사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창고, 곳간, 축사 등의 부속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 대지 및 부속사 규모의 현황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경우 산평1리는 평균 61.5평의 대지규모로서 가장 작았고, 양촌리의 대지면적이 평균 196평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농촌마을의 평균 대지면적은 평균 137.2평이었다<표 12>. 외사3리의 부속사 규모가 10.8평(취락구조 개선마을)과 15.6평(기존 농촌마을)으로 가장 작았으며, 능국리에서 30.3평(취락구조 개선마을)-33.9평(기존 농촌마을)으로 나타났다<표 12>.

나) 대지 및 부속사 규모에 대한 평가

대지면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 설문응답자의 60.4%와 63.9%가 적당하거나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취락구조 개선마을간의 대지규모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였을 때<표 13>,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대지규모 평가가 다른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평가와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ANOVA, Duncan 검증, P<0.01).

즉,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의 대지면적 (평균 61.5평)에 대한 평가가 다른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비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락구조 개선마을 등의 계획농촌마을에서는 적어도 120평 이상의 대지규모를 확보하

<표 12> 대지 및 부속사 규모 및 평가에 대한 비교

구분	대지 규모에 대한 평가(명:%)		부속사 규모에 대한 평가(명:%)		
	기존 농촌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	기존 농촌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	
매우 작다	5.7% (3)	9.8% (6)	15.7% (8)	14.0% (7)	
작다	34.0% (18)	26.2% (16)	21.6% (11)	24.0% (12)	
적당하다	39.6% (21)	55.7% (34)	47.1% (24)	52.0% (26)	
크다	17.0% (9)	6.6% (4)	13.7% (24)	10.0% (5)	
매우 크다	3.8% (2)	1.6% (1)	2.0% (1)	----	
평균 규모 (坪)	①	157.3	156.1	33.9	30.3
	②	124.0	129.9	15.6	10.8
	③	129.9	61.5	28.5	25.5
	④	---	196.0	---	25.5

註) * :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평균규모는 ①은 능국리, ②은 외사리, ③은 산평1리, ④은 양촌리를 의미한다. 응답율(%) = (해당항목의 응답자 수 / 해당 주거지의 총 응답자 수) * 100

<표 13> 취락구조 개선마을간 대지규모의 평가에 대한 차이검증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ratio	Duncan 검증			
					집단	(1)	(2)	(3)
(1) 능국리	18	2.778	0.548	4.678**	(1)			★
(2) 외사리	17	2.882	0.600		(2)			★
(3) 양촌리	14	2.786	0.975		(3)			★
(4) 산평1리	12	1.917	0.900		(4)			
합계/평균	61	2.693	0.817		** : P<0.01			

註) * : 취락구조 개선마을간 대지규모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매우 작다(1)-작다(2)-적당하다(3)-크다(4)-매우 크다(5)]의 응답을 평균한 것이다(★: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집단)

도록 하되, 구체적인 대지규모는 기존 농촌마을의 대지규모와 영농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속사 규모에 대한 주민 평가는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각각 62.8%와 62%가 적당하거나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는 부속사 크기가 작다는 평가가 6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협소한 대지면적으로 인해 경운기, 분무기 등의 농기계를 보관할 대지내 공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농촌거주민을 대상으로 약 20호의 사업규모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소규모 계획 농촌마을의 형성을 위한 사업방식이므로 적어도 50호 이상의 사업규모이고 농촌과 도시민의 혼주를 전제로 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신촌형)이 수행된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와 주민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해 형성되는 소규모 계획농촌마을의 공간구조와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 신촌형(A형)이 1990년 이후에는 전체 사업의 47.2%(143개 마을;전국)와 68.3%(28개 마을;경기도)를 각각 차지하였다. 1986-1994년 동안 경기도에서 조성된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평균 면적은 0.97ha, 평균 호수밀도(戸/ha)는 23.4로 나타났고, 사업부지 면적과 호수밀도의 상관관계가 -0.39(p<0.05)로 나타났다. 문화마을은 5.6ha와 23.5戸/ha로 나타났다.

2)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는 도로패턴에 따라 순환형, 막다른 골목형, 가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는 사업부지의 특성과 주민선호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는 궁극적으로 기존 농촌마을의 경관

특성과 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신축 주택의 부속사 유형은 크게 평면배치형, 수직배치형, 혼합배치형, 부속사 미설치형, 부속사 방치/재활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농가는 거의 대부분 부속사를 설치하였으나, 비농가/탈농가는 부속사 미설치형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신축주택에서의 부속사 유형은 농촌주택과 농촌주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4) 능국리와 외사리, 산평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기존 농촌마을과 비교하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주택의 질, 상수도, 하수도 등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5) 농촌마을(50호 규모)의 추가 필요시설로는 공원·체육시설이 가장 높은 요구도(68.2%)를 보여 공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공원·체육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주민휴식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8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찬성이유로는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깨끗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이 69.3%의 응답율을 보였다.

7) 농촌주민들의 상당수(60.9%)는 기존 마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취락정비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락정비방식은 농촌주민들의 선호를 고려하고 농촌마을 공간조직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기반시설의 확충 등의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목적 등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8) 산평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대지규모(평균 61.5평)에 대한 주민 평가가 다른 취락구조 개선마을(130평-196평)에 비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고). 따라서 취락구조 개선마을 등의 계획농촌마을에서는 적어도 120평 이상의 대지규모를 확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대지규모는 기존 농촌마을의 대지규모와 영농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註

1) 능국리마을의 경우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행정구역은 당촌리에 포함되나, 기존 농촌마을은 능국1리로, 취락구조 개선마을은 능국2리로 행정구역을 각각 변경하도록 추진중이어서 능국리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외사리의 경우 외사2리의 농경지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들어서면서 외사3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현재는 기존 농촌마을(외사2리)과 취락구조개선마을(외사3리)은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으나 외사리로 서술하였다.

2) 32개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에 대한 선형회귀분석결과는 $R^2=0.19$ (sig. F < 0.05)로 나타났으나, 특이한 경우(5ha의 사업면적과 호수밀도 100인 2개 경우)를 제외한 30개 사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R^2=0.66$ 으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때의 선형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선형회귀식(30개 취락구조개선마을)〉 : $Y(\text{호수밀도}) = -14.54X(\text{사업부지면적}) + 36.1$, $R^2=0.66$, sig. F < 0.001, X에 대한 sig. T < 0.001

3) 농촌마을 정비유형을 ①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 ② 농촌마을 독립형, ③ 현지마을 정비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유형을 다시 산재농가 통합형과 도시민과 농민 혼합형으로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임승빈 외(1995) 문화(집단)마을과 기존 농촌마을과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지 1(1) : 49-64〉

4) 능국리의 경우 물리적 형태는 농촌마을 독립형이나 설문응답자의 82.7%가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모두 우리마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기존 마을로의 통합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촌리의 경우 기존 농촌마을주민 거의 모두가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이주하였다. 우리마을 인식범

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을 참고할 것.
 <농촌생활연구소(1995) 농촌주택 및 마을의 주거공

간계획에 대한 연구. 1차년도 계속보고서>

引用文獻

- 김동찬 外(1987) “취락구조개선마을의 경관과 그 평가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새마을운동 학술논문집 12(2) : 521-568
- 김세기(1992) 한국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택규 外(1979) 농촌취락구조개선 방향 정립. 영남대학교
- 농촌생활연구소(1995)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제 1차년도 계속보고서
- 엄봉훈(1990) “한국농촌마을의 옥외공간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8(2) : 31-44
-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5) “문화(집단)마을과 기존 농촌마을과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지 1(1) : 49-64
- 윤원근(1994) 한국농촌주택의 공간변화와 영농형태의 관련성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성호 外(1981) “취락구조개선마을과 비개선마을의 주민의식, 생활구조 및 경제적 기능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 연구논문 6(2) : 355-388